

#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와 체면관

주민옥\*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중국인의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과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체면’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및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과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사이에서 ‘체면’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인의 오프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는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의견표명을 나타내려 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의견표명을 나타내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에 노엘 노이만이 제시하고 있는 ‘고립에 대한 공포’ 요인만이 아닌 ‘체면’ 요인 역시도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개인 의견표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체면’ 요인 중 ‘장소체면’은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과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모두에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중국인, 체면, 침묵의 나선 이론, 의견표명

## 1. 연구목적

침묵의 나선이론의 핵심개념에 근거하면 침묵의 나선현상은 전체의 안정을 중시한다. 노엘 노이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론은 사회 전체의 일체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기본행위와 관념이 동일한 공통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Noelle-Neumann, 1993). 이는 개인이 집단에 복종하고 소수가 다수에 따르는 집단활동(群體活動)이 기본원칙인데, 즉 개인은 전체가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협조하여 이를 유지토록 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는 개개인에게 사회 협조성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馬學淸, 2004).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일수록 개인이 아닌 전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여지는 높아만 간다. 전체주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빈번히 전체의 화합을 강조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의 영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 결국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주변의 의견과 달라 주변사람들에 의해 고립되어짐을 두려워하여 항상 주위를 관찰한 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피동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상의 전체적 맥락에서 집단을 중시하는 중국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중국인들 대부분은 이 이론의 설명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즉 주변과의 불협화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집단과 국가를 중시하는 중국에서는 항상 침묵의 나선이론의 핵심개념들이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중국학자들이 이 이론을 통해 중국인의 침묵현상을 관찰하고, 실제로 중국인들의 침묵현상을 발견하기도 했다(陳華明, 李暢, 2009; 崔蘊芳, 沈浩, 2005; 馬學淸, 2004; 謝新洲, 2003). 하지만 동시에 중국 내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 (jjoo9993@hotmail.com)

이 이론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에서 여전히 그녀의 핵심개념들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熊壯, 2011), 중국인의 침묵현상을 부정하는 연구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郭光華, 2002; 劉建明, 2002; 夏志梅, 彭光芒, 2006). 이들 중국 내 침묵의 나선현상을 부정하는 연구들은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에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여 그들의 의견표명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중 중국인의 체면 요인은 그들의 의견표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崔蘊芳, 沈浩, 2005).

그래서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복잡한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이해하는데 너무도 단순하게 ‘고립에 대한 공포’ 이유만으로 ‘다수는 얘기하려 하고 소수는 숨기려한다’는 식의 단방향적 접근은 분명 이 이론의 취약점 중 하나이다(Price V. & Allen S., 1990; Scheufele, D. A. & Moy P., 2000). 사람들의 공개적인 의견표현에 영향을 주는 주변 요인은 상당한데 단순히 고립에 대한 두려움 요인 하나만이 우리들의 모든 공개표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식의 해석은 확실히 아쉬운 연구접근임에 분명하다.

그 예로 실제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관찰하다보면 사람들이 주변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체면 요인 역시 개인의 태도변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崔蘊芳, 沈浩, 2005).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체면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도 사실이나 명확히 정의내릴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 중에 체면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吳鐵鈞, 2004). 그래서 누구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 그들의 체면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실제 중국인은 주변의 가족, 친척, 학우, 친구, 직장 동료, 고향지기 등과의 체면을 매우 중시한다. 또한 자신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할 정도로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의 체면연구에서 이러한 중국사회의 전통적 사회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상당한 연구적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吳鐵鈞, 2004).

결과적으로 중국사회 내에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체면’ 역시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를 이해하는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임을 예측할 수 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한 고립의 공포를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체면이 떨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자신이 놓이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려 노력한다. 개인차 또는 문화 차이로 인해 체면에 대한 민감 정도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떨어지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개인 모두 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곧 자신의 체면이 높은 단계로 상승되어짐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 모두는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과 주변의 여론동향(The climate of opinion: 의견기후)<sup>1)</sup>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체면을 유지 하기위해 원래의 진술 된 의견을

1) 침묵의 나선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가지 통로, 즉 ‘미디어’와 ‘주변사람’으로부터 주변의 다수의견을 파악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의견기후(The dual climate of opinion)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는 미디어 연구와 수신자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때로는 혼용되기도 하고, 수신자의 선행행동(미디어 접촉)과 이들의 사후행동(주변사람 접촉) 간의 상호관계를 추적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상술한 두 가지 정보접촉 통로를 모두 가정하지만 후자, 즉 주변사람들에 의한 정보접촉을 더욱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차원의 연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과의 접촉 단계에서의 개인의 체면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숨겨버리거나 일시적으로 자기의 관점을 바꾸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것과 침묵의 나선 행위에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상당부분 유사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중국인의 체면 요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의 적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다면 침묵의 나선이론에서의 고립에 대한 공포 요인만이 아닌 체면 요인 역시 이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일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선 중국을 구성하는 중국인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큰 그림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는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체면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중국인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관찰하고, ‘체면’ 요인 역시 그들의 의견표명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와 체면간의 상관관계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대부분의 침묵의 나선이론 연구가 다양한 나라에서 오프라인에서의 사람들의 침묵의 나선현상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면(미국: Glynn C. J., & McLeod, J. M., 1984; Neuwirth, K. et al., 2007; 한국: 박성희, 박은미, 2007; 양승찬, 1998a, 1998b; 일본: Tokinoya, H., 1989, 1996, 중국: 崔蘊芳, 沈浩, 2005; 劉建明, 2002; 필리핀: Gonzalez, H., 1998; 멕시코: Neuwirth, K., 2000; 중국홍콩: Willnat, L., 1996; 중국대만: Huang, H., 2005; Lin, W. K., & Pfau, M., 2007; 싱가포르: Willnat L. et al., 2002; 슬로베니아: Petric, G., & Pinter, A., 2002; 이스라엘: Shamir, J., 1995, 1997)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오프라인에서 개인의 의견표명(이하 오프라인 의견표명)’, ‘온라인에서 개인의 의견표명(이하 온라인 의견표명)’ 그리고 ‘체면’ 세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 ‘체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총 세 개이다.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H1, ‘체면’과 ‘오프라인 의견표명’ 및 ‘온라인 의견표명’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H2, 그리고 ‘체면’이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H3이다. 이 중 체면은 요인분석에 근거하여 ‘장소체면’과 ‘인물체면’으로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의 체면에 대한 반응 정도를 관찰함에 있어 무엇보다 당사자가 ‘어느 곳에서 경험하는지’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여부는 모두 개인의 체면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체면은 통상적으로 사회 내 타인과의 사회관계에서 자아가치의 주관적인 평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자아가치가 떨어지거나 상실되었을 당시에 타인이 현상이 있었는지 여부, 그 타인과의 관계가 가깝고 중요한 정도, 본인의 행위와 타인의 기대치 간의 차이 등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체면의 정도는 달리 나타난다(劉繼富, 2009). 더불어 이들과의 사회교류가 어느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역시 개인의 체면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 2. 이론적 논의

침묵의 나선이론이 주장하는 주요 핵심개념 중 하나가 사람들의 의견표명이다. 그리고 이 의견표명은 다양한 설명변인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결과변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견표명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본적으로 주변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로 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이는 노이만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제6의 감각기관, 즉 ‘유사통계기관(Quasi-statistical organ)’을 구비하고 있어 이를 통해 주변의 의견을 수집한다는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주변의 의견을 수집하고 나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고립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하지만,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체면’ 역시도 개인의 태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중국인은 체면을 ‘体面(체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面子(면자)’라고 부른다. 또 일부 체면 관련 연구자의 정의에 따르면 체면은 다시 ‘臉(리엔)’과 ‘面(미엔)’으로 구분된다(胡先縉 作, 黃光國 編, 1989). 전자는 사람의 얼굴을 지칭하고 후자는 표면을 나타낸다. 둘 모두 밖으로 나타나는 신체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약간씩 정의하는 바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臉’은 개인의 도덕관념, 반면에 ‘面’은 개인의 사회 명성, 명예와 연관이 깊다(崔佳佳, 楊春紅, 2008; 劉繼富, 2009). 사회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윤리도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臉’개념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공헌을 통해 타인들에게 받는 명성, 명예를 ‘面’개념을 통해 각각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 체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중국인의 표현을 직설하면 ‘얼굴을 잃다(丟臉)’와 ‘면자가 없다(沒面子, 沒有面子)’이다. 전자는 ‘체면을 잃다’, 후자는 ‘면목이 없다’ 정도로 의역이 가능하다.

### 1) 침묵의 나선이론과 의견표명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자신이 제시한 주장 내지 의견이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지 안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결정할 때 “당신의 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는 “당신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침묵의 나선 현상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일종의 사회심리 현상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본인 주변의 환경을 관찰하여 주변의견을 평가하려 한다. 그리고 관련 화제에 대한 의견분포를 수집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확정지어 공개적으로 표현하려한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현재의 주류의견을 파악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세하게 될 우세의견을 예측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관찰본능은 다수를 따르려는 군중심리(從衆心理)와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려는 추동행위(趨同行爲)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중심리와 추동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본능의 근본 원인은 사회고립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馬學清, 200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달라 그들에 의해 고립되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 및 매스미디어의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자신의 공개적 의견표명 태도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군중의 목소리에 부합하려는 심리적 태도를 항상 취하려 하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시시각각 주변의 태도와 대중매체를 관찰하여 ‘우세의견’과 ‘열세의견’을 분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사회 내 집단에 의한 격리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반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면 본인이 강렬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려는 욕구가 없는 이상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하거나 오히려 거짓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려 한다(Noelle-Neumann, E., 1989).

실제 사회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필연적으로 주변의 다른 구성원들과 사회교류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나타내 그들의 따돌림을 받는다면 개인은 상당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주변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견해를 나타내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고유의견을 유지, 강조해 나가는 것이다. 우선 사회이슈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의견표명 태도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에이즈: Lasorsa, D. L., 1991; 낙태: Shoemaker, P. J. et. al, 2000; 성소수자: Willnat L. et. al., 2002; 사형제도: Petric, G., & Pinter, A., 2002; 국가침략: Neuwirth, K. et. al., 2007; Huang, H., 2005). 그리고 개인차에 의해 관련 사건에 관여하는 관심정도 역시 다를 것이다(Hayes, A. F. et al., 2005).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 모두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성(Katz, C. J., & Baldassare, M., 1992), 나이가 많음(Scheufele, D. A. et al., 2001), 교육수준이 떨어짐(Moy, P. et al., 2001), 수입이 낮음(Scheufele, D. A., & Eveland, W. P., 2001) 이러한 집단에서 침묵의 현상이 더 잘 나타난다. 그리고 관련 사안이 일반 공중들에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사건으로 인식되어진다면 이에 대한 그들의 의견표명 의지도 서서히 줄어들겠지만, 만약 사건이 본인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시간이라는 변수는 더 이상 그들의 의견표명 태도에 영향으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명예와 체면(崔蘊芳, 沈浩, 2005), 경제적 손익(Taylor, D. G., 1982), 그리고 개인에게 중요한 정도(Hayes, A. F. et al., 2001; Kim, S. et al., 2004) 등 본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일수록 개인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상대에 끊임없이 저항하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 할 때, 단순히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자기표명을 결정한다는 일방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있어 정보전달자와 정보수신자간 익명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사람들 사이 면대면적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자신의 의견표명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실제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는 쌍방 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호간 의견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이미 FTF(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다(常昌富 등, 2000).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예측함에 있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까지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환경에서 타인들과의 사회교류 방식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진솔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데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와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증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 2) 중국인의 체면관

지금의 중국사회는 끊임없이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 중국인은 물질생활과 사상패턴(思想模式) 방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繆昌義, 2008).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기존의 전통적 체면관을 수정 또는 조정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중국인이 더 이상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비록 외부의 영향에 의해 형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인에게 있어 체면은 그들의 삶 전반에 작용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繆昌義, 2008; 吳鐵鈞, 2004).

중국사회에서 개인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공간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 본인의 언행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가족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한 개인이 사회에서 성취해 낸 일이 가족과 공중의 기대에 부합하게 되면, 개인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 가족 역시도 그로 인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그 개인이 가족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옳지 않은 선택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본인 스스로 창피함을 느끼는 물론 가족 전체의 체면이 떨어 질것에 대해 걱정 할 것이다. 결국 그 개인은 가족 집단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가족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체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이 선택이다. 이것은 ‘체면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有臉見人)’, ‘체면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無臉見人)’는 중국인의 체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함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중국 사회에서 많은 개인의 선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 혹은 공동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와 그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가족과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된다(翟學偉, 2004).

이러한 접근에서 중국인에게 있어 체면은 양날의 검과 같다. 체면이 중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하면 역으로 개인의 인성(人性)이 발전해 나가는데 제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趙昌平, 2010).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중국사회에서 개인은 상대에게 보다 나은 체면을 형성하기 위해 집단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체 거부한다. 그래서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인성이 침해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는 조화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지만 개인은 개성을 인정받기 보다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인에게 체면은 개인신분 상승(胡先縉 作, 黃光國 編, 1989)과 타인으로 부터의 이상적인 이미지 획득을 위한 쟁취(魯瑜, 2005)로 이해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본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일 혹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들이 원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못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회봉사, 기부, 입양, 주기적 헌혈, 무상교육, 무상지원, 공공시설 건설 등 개인의 유·무적 인 선행과 희생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주목을 끌기 충분한 행동들이다. 이를 통해 타인들의 존중, 존경,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면 자신의 가치는 충분히 상승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고 축적되면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고, 타인들에 의해 중요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명예와 명성의 획득을 체면과 동일시하기도 한다(崔佳佳, 楊春紅, 2008; 沈毅, 2003). 자신이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 즉 이상적인 이미지로 각인된다

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올라간다면 개인의 체면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

만약 타인과의 교류에서 자신의 애기가 자연스럽게 못하다고 느끼거나 그 표현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체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그들의 평가는 당사자의 체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머쓱해짐, 얼굴이 빨개짐, 땀이남, 시선이 자연스럽게 못함, 몸이 떨림, 행위가 바보스러워짐, 부끄러움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胡秀潤, 2006).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든 대학생은 자아의식이 확장되고, 우정과 사랑을 얻고자 갈망하는 성숙의 단계이다. 인간교류에 굉장히 민감하고,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매우 중시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타인에게 나쁜 인상으로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체면이 떨어지는 것을 항상 걱정한다(崔蘊芳, 沈浩, 2005). 그래서 소위 중국에서 소황제(小皇帝)로 칭해지는 젊은이들이 유독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이유가 그들의 유년시절에서의 체면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중국은 계획출산(計劃生育)법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여 대부분의 가정에는 하나의 자녀밖에 없다. 부모는 물론 부모들의 부모들까지 모두 하나의 자녀에 쏟는 정성이 대단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에서 자라난 중국 아이들은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이 울타리를 벗어난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 중심축이 타인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들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항상 유지되던 자신의 체면이 타인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면 더 큰 혼란을 보이다가도 이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저항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체면은 사람들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신분, 지위는 점점 소비의 질과 깊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의 소비활동에서 역시 체면은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품질이 더 좋고 값비싼 제품을 얻음으로써 곧 자신의 체면이 올라간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본인은 얻을 수 있다는 만족감을 자신의 체면 유지의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자원(經濟資源), 사회자원(社會資源) 등을 쟁취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姜彩芬, 2009).

이렇듯 중국인에게 체면은 매우 익숙한 사회심리 개념이다. 그들의 일상적인 사회교류 중 자신의 체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모든 이들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있다. 그래서 체면은 중국인에게 있어 그들의 사회생활 중 없어서는 안 될 일상용품과도 같다(沈毅, 2003). 자신을 밖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체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역시 본인의 체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집단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중국문화에서 사회교류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체면은 개인부터 가족, 이웃, 소속집단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주요 가치 중에 하나이다.

### 3.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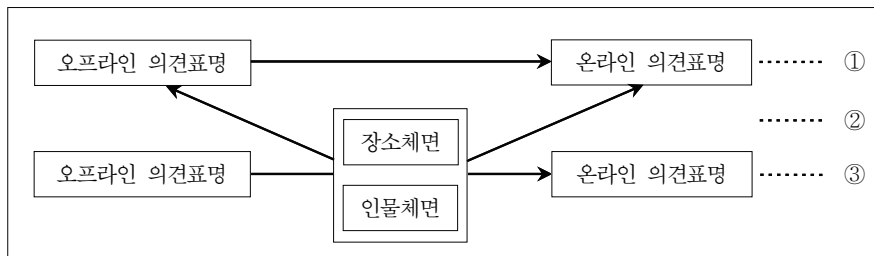
####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 및 이 행위와 체면간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이들의 의견표명 행위는 물론 체면의 매개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국인이 사회제도 및 국가체제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인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뚜렷하게 표현하는데 익숙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가와 개인을 동일시 하려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체면은 중국인의 삶에서 매우 보편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어 이들의 체면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곧 중국인의 인간상호간 교류(人際交往)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인식된다(沈毅, 2003). 중국인에게 있어 체면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사회교류 행위를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체면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중국인의 체면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崔佳佳, 楊春紅, 2008; 崔蘊芳, 沈浩, 2005; 胡秀潤, 2006; 繆昌義, 2008; 吳鐵鈞, 2004; 翟學偉, 1999, 2004).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체면의 개념정의에 편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타인과의 사회교류에서 체면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체면에 대한 태도 및 사고를 관찰하는 실증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姜彩芬, 2009).

이러한 중국인의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와 체면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가설



- H1 오프라인에서 의견표명을 나타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도 개인의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 H2 ‘체면(장소체면, 인물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인의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 H3 ‘체면(장소체면, 인물체면)’은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1은 기존 대다수의 연구들과 같이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상술하였듯 단순히 사람들의 오프라인 연구에 치우치거나 혹은 온라인(박성희, 박은미, 2007; 郭光華, 2002; 劉海龍 2001; 夏志梅, 彭光芒, 2006; 謝新洲, 2003)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면, 본 연구는 실제 오프라인 의견표명 행위와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2는 체면의 두 요인 장소체면, 인물체면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개인 의견표명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다. 중국인이 체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중국인은 제3자와의 교류에서 자신의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판단 할 수 있다. 이에 체면이 그들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만약 본 연구에서 체면이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에 일정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그 정도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추정하려는 상호 요인간의 관계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영향관계를 가정하고 있다.<sup>2)</sup>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3은 앞서의 연구가설 1과 2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서 체면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다. 연구가설 1과 2에서 각각의 두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수치를 가정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가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관계에서 체면이 어느 정도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그 정도와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두개의 체면요인은 중국인의 체면을 양적 연구를 통해 구체화한 崔蘊芳와 沈浩(200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그들은 중국 내 체면을 연구한 절대 다수의 학자들과는 달리 양적연구를 통해 중국인의 체면을 구체화하려 노력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중국인의 체면은 ‘개인 사생활 노출’, ‘개인능력 모자람’ 그리고 ‘개인의 불량습관’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sup>3)</sup> 본 연구자는 그들의 연구에서 각각의 요인별로 묶여진 개별 요인들을 분석하는 과정 중 관련 사건들이 ‘누구와’ 그리고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체면의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그들이 제시한 유목보다는 보다 현실감 있는 유목들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 및 체면간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관찰하는 적지 않은 실증연구들이 면접 설문조사(Glynn C. J., & Park, E., 1997; Hayes, A. F., 2007; Lasorsa, D. L., 1991; Scheufele, D. A., & Eveland, W. P., 2001) 혹은 전화 설문조사(Baldassare M., & Kantz, C., 1996; Huang, H., 2005; Neuwirth, K., 2000, 2007; Shoemaker, P. J., 2000; Willnat, L., 1996) 방법을

2) 더불어 연구가설 2는 연구가설 3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서 체면요인의 매개역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면요인과 위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 즉 세 요인 들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해야 한다.

3) ‘개인 사생활 노출’ 요인은 ‘불륜이 발각됨’, ‘혼전임신’, ‘이혼’ 등이고, ‘개인능력 모자람’ 요인은 ‘사업실패’, ‘애인에게 이별통보 받음’, ‘시험탈락’, ‘성기능 장애가 공개됨’ 등이며, ‘개인의 불량습관’ 요인은 ‘음악회에서 큰소리로 얘기함’,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뽀’, ‘무임승차하다 발견됨’ 등이다.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일종의 사회심리과정을 단순히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하여 수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판은 무분별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방법의 단순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 같은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되, 통계분석 방법의 개선을 위해 설문지 구성 단계에서 부터 회귀분석 이상의 통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문항 위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통계분석 실시 전 해당 문항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물론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인 대학생 위주로 표집집단을 설정하였다. 이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주요 이유는 이 연령대의 집단들이 오프라인에서 주변의 다양한 친구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 대학생들은 자신의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데, 이는 이들의 인생 중 가장 감성에 민감한 시기임과 동시에 주체적 자아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진 결과이다(胡秀濶, 2006). 더불어 본 연구는 중국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는 물론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까지도 함께 관찰해야 한다. 이들 대학생 위주의 청년들은 실생활에서 온라인을 자주 접하는 집단으로 학업은 물론 여가생활 역시도 상당 부분 인터넷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에 중국 호북성(湖北省) 무한시(武漢市)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 사회활동이 빈번하고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20, 30대 연령대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26~30일이었고, 총 330부의 설문지 중 유효 설문지 313부가 본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남성은 150명(47.9%), 여성은 163명(52.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246명(78.6%), 30대 67명(21.4%)이었다.

### 3) 측정요인의 구분

본 연구에서 연구검증을 위해 설계된 측정요인은 ‘오프라인 의견표명’, ‘온라인 의견표명’ 그리고 ‘체면’ 요인이다. ‘오프라인 의견표명’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총 5개의 설문문항을 설정하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인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해 못하는 문제를 물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의 기차 안에서 주변의 익숙지 않은 사람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주변의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 명확히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항목들에 대한 답변은 강한 의지(5점)를 ‘매우 원함’으로 설정하고, 약한 의지(1점)를 ‘매우 원하지 않음’으로 설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의견표명’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총 4개의 설문문항을 설정하였다. ‘인터넷 게시판 혹은 토론방에서 다른 네티즌들에게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와 의견에 대해서 물어본다’, ‘인터넷 게시판 혹은 토론방에서 다른 네티즌들과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한다’, ‘인터넷 게시판 혹은 신문보도의 댓글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 ‘만약 다른 네티즌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자신이 더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그리고 각 항목들에 대한 답변은 강한 의지(5점)를 ‘매우 많음’으로 설정하고, 약한 의지(1점)를 ‘매우 적음’으로 설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체면’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총 5개의 설문문항을 설정하였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남(여)자친구와 말씨름을 벌였다. 당신의 감정은?’,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마친 후 캐쉬어가

3원(인민폐)을 덜 거슬러 준 것을 발견하였다. 당신이라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10원(인민폐)이 땅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당신이라면?’,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이성친구를 만나 상대가 밥을 산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할 때 당신이라면?(역코딩)’, ‘친구가 밥을 사는 자리에서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주문한 음식이 좀 모자라다. 당신이라면?’ 그리고 각 항목들에 대한 답변은 **체면중시 안함 의지(5점)**를 ‘창피하지 않다(1번항목), 거슬러 받아서 온다(2번항목), 돈을 줍니다(3번항목), 자신이 계산한다(4번항목), 친구에게 말한다(5번항목)’로 설정하고, **체면중시 의지(1점)**를 ‘창피하다(1번항목), 거슬러 받기를 포기한다(2번항목), 돈을 줍지 않는다(3번항목), 친구가 계산하기를 기다린다(4번항목)’, 친구에게 말하지 않는다(5번항목)로 설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4) 연구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검증해야 하는 연구가설은 첫째 사람들의 ‘오프라인 의견표명’, ‘온라인 의견표명’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체면’의 두 요인 ‘장소체면’, ‘인물체면’과 ‘오프라인 의견표명’ 및 ‘온라인 의견표명’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 매개변수인 ‘체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연구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Baron, R. M. & Kenny, D.A. (1986)가 제안하고 있는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구검증을 실시하였다.<sup>4)</sup> 이 방법은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영향관계,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관계를 각각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경로계수( $p > 0.05$ )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면 매개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이고, 반대로 경로계수( $p < 0.05$ )가 유의하게 나타나면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2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A의 영향값( $\beta$ )은 3단계에서의 같은 독립변수 A의 영향값( $\beta$ )보다 크게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요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의견표명’(0.717), ‘온라인 의견표명’(0.851) 그리고 ‘체면’(0.453) 모두 cronbach의 알파 계수가 비교적 1에 근접하여 각각의 문항간의 유사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오프라인 의견표명’의 5개 문항과 ‘온라인 의견표명’의 4개 문항은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하나로 묶인 요인들은 ‘오프라인 의견표명’은 전체의 47.18%, ‘온라인 의견표명’은 전체의

4) 본 연구에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표준화된  $\beta$ 값의 직접효과를 근거로 그 간접효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산출된 각각의 표준화된 직접효과 값과 간접효과 값을 상호비교하여 매개요인의 매개정도와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말해 잘못된 산출방법이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동일 선상에 위치하는 관측변인들과 매개변인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 판별과 관계없이 그대로 직접효과 값을 통해 간접효과 값을 산출해 낸다. 하지만 3단계 매개회귀분석에서는 위 변인들의 관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통계적 범위를 벗어난다면 더 이상의 상호비교가 불가능해 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인물체면의 경우 더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매개효과분석을 진행하는 양적 연구에서는 다수의 영향변인들이 존재하거나 더비변수가 포함된 상황에서의 위계적 회귀분석 이외에는 모두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함이 옳다.

69.24%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체면’의 경우는 5개의 문항 중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하나의 문항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후 나머지 문항들은 두개의 요인으로 묶였는데,<sup>5)</sup> 첫 번째 요인을 ‘장소체면’, 두 번째 요인을 ‘인물체면’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두 개의 요인은 전체의 46.60%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지 구성 단계부터 불필요한 문항들을 배제하고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만을 설문지에 구성하다보니 실제 세 변인 각각에 대한 세부문항이 적기도 하고, 요인분석 결과 각각의 요인들이 여러 개로 묶이지도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통계분석상의 오류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전체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의견표명’(0.000<.01, 0.730), ‘온라인 의견표명’(0.000<.01, 0.803), ‘체면’(0.018<.05, 0.546) 모두의 Bartlett의 수치는 .05 미만이었고, KMO 수치 역시 1에 비교적 근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모형의 유의성이 검증되어 통계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연구결과

##### 1) 연구가설 1 검증

<표 1> ‘오프라인 의견표명-온라인 의견표명’ 회귀분석표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048	.052		-.925	.365
오프라인 의견표명	.323	.052	.336	6.212	.000***

dependent variable: 온라인 의견표명 / R<sup>2</sup>=.113

(\*\*\*p<.001, \*\*p<.01, \*p<.05)

본 연구의 연구가설 H1은 두 개의 요인,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비록 상호변인 간에 상관계수 제곱 수치(0.113)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회귀모형은 F=38.587,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간의 관계에서 회귀모형은 두 변인 간에 선형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두 변인 간의 상관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수치인 표준화 회귀계수(beta)<sup>6)</sup>는 0.3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6.212, p=.000<0.01). 따라서 이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의견표명’은 ‘온라인 의견표명’에 정적(正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은

- 5) 체면문항 중 2번 항목은 장소체면 요인에 묶이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가 다소 낮게 나와 이를 제거하여 나머지 4개의 항목만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로 묶인 요인이 전체를 설명하는 수치는 확연히 상승하고 있었다.
- 6)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단위 구분 없이 독립변인이 1 변할 때의 종속변인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단위가 서로 다른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을 한 단위로 표준화한 이후의 상호간 상관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이 1 변할 때 해당 표준화된 회귀계수 만큼의 + 혹은-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상관계수 R은 같다.

온라인상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연구가설 2 검증

<표 2> ‘체면-오프라인 및 온라인 의견표명’ 회귀분석표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오프라인 의견표명	Constant	-.098	.051		-1.911	.057
	장소체면	.235	.052	.256	4.516	.000***
	인물체면	.032	.052	.034	.608	.543
	dependent variable: 오프라인 의견표명 / R <sup>2</sup> =.069					
온라인 의견표명	Constant	-.070	.053		-1.328	.185
	장소체면	.173	.054	.183	3.227	.001**
	인물체면	.114	.053	.121	2.144	.033*
	dependent variable: 온라인 의견표명 / R <sup>2</sup>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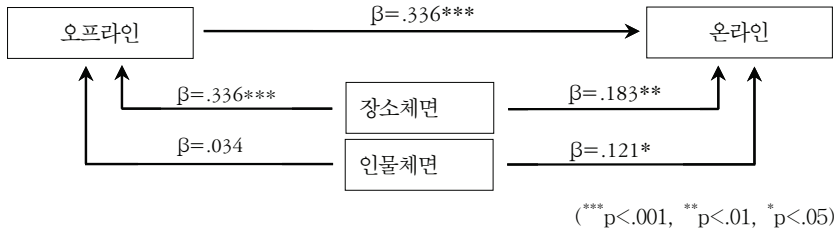
(\*\*\* p<.001, \*\* p<.01, \* p<.05)

연구가설 H2는 체면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개인 의견표명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체면’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체면’의 두개의 요인 ‘장소체면’, ‘인물체면’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7)</sup> 회귀모형은 F=10.932, p=.000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록 R<sup>2</sup>=.069로 나타나 회귀모형을 반영하는 설명력은 낮으나, Durbin-Watson=2.015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Tolerance=.983≥0.1, VIF=1.018≤10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두 요인 중 ‘장소체면’(β=.256)은 ‘오프라인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작은 편이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오프라인 의견표명-인물체면’(β=.034)은 상호 요인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상호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면’과 ‘온라인 의견표명’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체면’의 두개의 요인 ‘장소체면’, ‘사람체면’과 ‘온라인 의견표명’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F=8.444, p=.000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록 R<sup>2</sup>=.053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을 반영하는 설명력은 낮으나, Durbin-Watson=1.826으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Tolerance=.986≥0.1, VIF=1.014≤10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체면의 두 요인 모두 ‘온라인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체면’(β=.183)이 ‘사람체면’(β=.121)보다는 ‘온라인 의견표명’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요인 모두 그 영향력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7) ‘체면’의 5점 척도에서 낮을수록 ‘체면을 중시한다’이고, 반면에 ‘오프라인 의견표명’ 및 ‘온라인 의견표명’의 5점 척도에서는 높을수록 ‘의견을 표명한다’이다.

<그림 2> ‘오프라인 의견표명’, ‘온라인 의견표명’ 그리고 ‘체면’ 상호간의 영향관계



3) 연구가설 3 검증

<표 3> ‘오프라인 의견표명-온라인 의견표명’에서의 ‘장소체면’의 매개역할 회귀분석표

매개회귀분석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단계	Constant	-.041	.054		-.754	.451
	오프라인	.222	.054	.231	4.141	.000***
dependent variable: 장소체면 / R <sup>2</sup> =.053						
2단계	Constant	-.048	.052		-.925	.365
	오프라인	.323	.052	.336	6.212	.000***
dependent variable: 온라인 의견표명 / R <sup>2</sup> =.113						
3단계	Constant	-.062	.051		-1.204	.230
	오프라인	.299	.052	.313	5.725	.000***
	장소체면	.134	.052	.140	2.565	.011*
dependent variable: 온라인 의견표명 / R <sup>2</sup> =.136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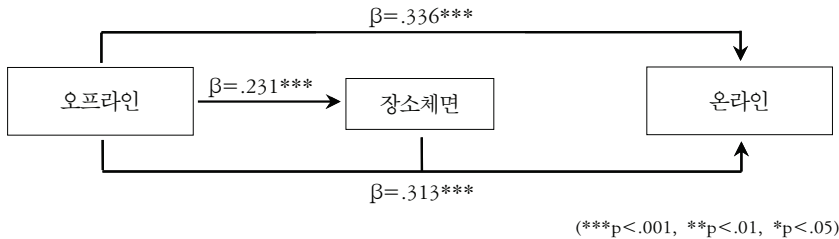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가설 H3은 ‘체면’이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 매개변수로써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오프라인 의견표명-체면’의 영향관계, 2단계에서 ‘오프라인 의견표명-온라인 의견표명’의 영향관계를 각각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3단계에서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체면-온라인 의견표명’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매개변수 ‘장소체면’의 영향정도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오프라인 의견표명’이 매개변수 ‘장소체면’에 미치는 영향(t=4.141, p=.000<0.01)은 유의적이었으며, 2단계에서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간의 영향관계(t=6.212, p=.000<0.01)도 유의적이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장소체면’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 ‘온라인 의견표명’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적이고(F=23.617, p=.000<0.01), ‘오프라인 의견표명’(t=5.725, p=.000<0.01), ‘장소체면’(t=2.565, p=.011<0.05) 모두 종속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1, 2, 3단계 모두 매개회귀분석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결과적으로 2단계에서 ‘오프라인 의견표명’이 ‘온라인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beta=.336)이 3단계에서 ‘오프라인 의견표명’이 ‘온라인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 $\beta=.313$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의 영향관계 사이에서 ‘장소체면’은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소체면’이 둘 간의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 해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간의 상관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 ‘인물체면’의 영향정도를 검증한 결과 2, 3단계는 매개회귀분석 조건을 충족하나 1단계(‘오프라인 의견표명-인물체면’)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의수준 범위( $p=.225>0.05$ )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개회귀분석을 진행 할 수 없었다.

<그림 3> ‘오프라인 의견표명-온라인 의견표명’에서의 ‘장소체면’의 매개역할



## 5. 연구결론

본 연구에서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와 체면 요인을 접목하여 중국인의 의견표명 태도 및 이에 나타나는 체면요인의 영향력을 함께 예측,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의견표명 행위는 다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된 환경에서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구분된 환경에서의 의견표명 행위와 체면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중국인의 오프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와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 사이에 체면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가설 H1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개인의견을 표현하고자 할수록 온라인에서도 공개적으로 개인의견을 표현할 것이다.”는 성립되었다.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려 하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중국인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나 의견이 있다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인의 오프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는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H2 “체면(장소체면, 인물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개인의견을 표현 할 것이다.”는 ‘오프라인 의견표명-장소체면’은 성립, ‘오프라인 의견표명-인물체면’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온라인 의견표명-장소체면’과 ‘온라인 의견표명-인물체면’은 모두 성립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체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장소체면)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밖으로 나타내어 혹여나 체면이 떨어질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반면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체면에 대한 민감정도(인물체면)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소체면과 비교하여 그 통계수치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인은 불특정 다수의 장소체면 보다는 자신과 아는 사람들과의 인물체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소체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혹은 무의미한 통계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중국인이 주변인들과의 사회교류 과정에서 작용하는 ‘관시(關係) 문화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가설 H2에서 그 상관관계는 낮지만 체면요인이 중국인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의견표명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인물체면’ 보다는 ‘장소체면’과의 상관관계가 더 상당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H3 “‘체면’은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는 ‘장소체면’ 요인에서만 성립되었다. ‘장소체면’ 요인은 ‘오프라인에서 개인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도 개인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H1의 가설에 영향을 주어 그 수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인물체면’은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온라인 의견표명’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 매개회귀분석 3단계 중 일부 단계에서는 분석조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도 있어 더 이상 분석을 진행 할 수 없었다. 이상의 H3의 결과는 상술한 H2에서의 연구결과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소체면이 인물체면보다 중국인들의 의견표명 행위와 더 밀접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에서 장소체면의 매개성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앞서의 통계수치들을 통해 ‘온라인 의견표명’에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장소체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런데 매개변인으로서의 ‘장소체면’은 ‘온라인 의견표명’에 계속하여 정적(正的)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변인 중간에서 부적(負的)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장소체면’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두 요인, ‘오프라인 의견표명’과 ‘장소체면’이 서로 다른 형색으로 ‘온라인 의견표명’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독립변인은 모두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공통(共同)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형태의 영향요인이라는 상이(相異)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추가로 주목할 점은 중국인의 ‘인물체면’에 대한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인물체면’과 관계된 통계수치가 낮은 유의미적 관계 혹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인물체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응답이 대부분 같은 지점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인물체면’의 설문문항의 평균들은 ‘장소체면’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응답간의 집중도를 추측할 수 있는 표준편차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sup>8)</sup> 그리고 산포도를 확인한 결과 역시 대부분의 응답은 3이하 ‘체면을 중시한다’에 모여 있음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 대부분은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의지와 관계없이 모두 안면이 있는 사람(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과 관련된 자신의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사건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그들의 체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거칠게나마 예측해 볼 수 있다. 만약 관련 사물이 본인에 속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자신에게 충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인물체면’ 역시도 나타나지 않을

8) 중국인들은 장소가 어디인지 체면[체면①(m=2.49, std. dev.=1.357), ③(m=3.13, std. dev.=1.504)] 보다는 누구와 관계된 체면[체면④(m=1.71, std. dev.=0.882), ⑤(m=2.31, std. dev.=1.397)]인지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체면의 설문항목 중 체면②에서 중국인은 비록 3원(인민폐)이지만 가게에서 모자라게 거슬러준 돈을 찾아 돌아오는 경향( $m=3.90$ )을 강하게 보여 주었다. 반면 체면③에서 10원(인민폐)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 돈을 줍는 경향( $m=3.13$ )은 체면②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체면②와 체면③을 비교했을 때 돈의 액수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떠한 공간인지와 관계없이 사물이 본인에게 속해있는지(거스름 돈) 아닌지(거리의 돈) 여부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땅에 떨어진 돈의 금액이 충분할 정도의 높은 가치가 있다면 비록 본인에게 포함된 돈이 아니지만 체면이 떨어지는 것을 무릅쓰고 줍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도 예측 가능하다.

이상의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해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이러한 기대는 상호 다른 두 집단 간의 교류에 있어 단순히 당면한 사건(事件)에 집중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理解)가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 뜻을 같이 한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상으로 본인의 의견표명 행위에 적극성을 보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들과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잡음(noise)을 줄여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안에 포함되고는 있지만, 본 연구자가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기대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음은 분명하다. 앞으로 이어지는 관련 연구에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 작업을 통해 설문수집 범위를 넓히고, 설문문항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한다. 무엇보다 연령대의 폭을 넓혀, 연령 및 성별과 사람들의 의견표명 그리고 체면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인 연구집단을 다수와 소수로 나누어 각각의 의견표명 행위와 체면 요인 간의 관계를 상호 비교, 관찰했으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로써 동서양의 체면에 관한 인식차이 또는 동아시아 내 국가 간의 인식차이 역시도 함께 구체화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세대간, 국가 간 차이에 따라 개인의 의견표명 및 체면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함은 물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그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세대간, 국가간 차이에도 이상의 연구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등을 함께 검증하였으면 한다.

## Ⅰ 참고문헌

- 박성희·박은미(2007).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슈 유형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관한 연구: 인터넷 여론조사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 통권 39호.
- 양승찬(1998a). 사회시스템 성격을 고려한 침묵의 나선이론 연구: 의견분위기 지각과 공개적인 의견표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통권 20호.
- \_\_\_\_\_(1998b).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연계성: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과 공개적 의견표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통권 43(2).

- 常昌富, 李依倩編選; 關世杰等譯(2000). 『大眾傳播學: 影響研究范式』(매스커뮤니케이션학: 영향연구 패러다임).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陳華明, 李暢(2009). 当下中國互聯網語境中的‘沉默的螺旋’(현재 중국 인터넷 언어환경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 『西南民族大學學報』, 總第210期.
- 崔佳佳, 楊春紅(2008). 漢英文化中的面子及禮貌(중미문화 중의 체면과 예절). 『四川教育學院學報』, 第24卷 第7期.
- 崔蘊芳, 沈浩(2005). ‘面子’与‘沉默的螺旋’—一种檢驗和探索(체면과 침묵의 나선이론). 『現代傳播』, 總第137期.
- 郭光華(2002). 論網絡交往中‘沉默的螺旋’假說的局限(온라인 교류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 가설의 한계).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第31卷 第6期.
- 胡先縉 作; 黃光國 編(1989). 『中國人的面子觀: 見: 中國人的權力遊戲』. 台北: 巨流圖書公司.
- 胡秀濶(2006). 大學生社交恐怖症的形與中國的面子文化(대학생의 사회교류 공포증의 형성과 중국의 체면문화). 『商丘師範學院學報』, 第22卷 第6期.
- 姜彩芬(2009). 面子与消費-基于結構方程模型的實証分析(체면과 소비—구조방정식 모형의 실증분석). 『廣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8卷 第10期.
- 劉海龍(2001). ‘沉默的螺旋’是否會在互聯網上消失(침묵의 나선이론은 인터넷 하에서 소실되는가?). 『傳播論壇』.
- 劉繼富(2009). ‘面子’定義探新 體面정의의 새로운 탐색. 『社會心理科學』, 第23卷 第5期.
- 劉建明(2002). 受衆行爲的反沉默螺旋模式(수신자 행위의 반(反)침묵의 나선 모형). 『現代傳播』, 總第115期.
- 魯瑜(2005). 面子: 中西方文化冲撞与解讀(중·서방문화의 충돌과 해독). 『深圳師範學院學報』, 第27卷 第5期.
- 馬學清(2004). ‘沉默的螺旋’在傳統大眾傳播環境和網絡傳播環境中表現方式的差异(전통 매스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하에서 침묵의 나선의 표현방식의 차이). 『重慶郵電學院學報』.
- 繆昌義(2008). 中國人和美國人語言交際中的面子觀探索(중국인과 미국인의 언어교류 중의 체면관 탐색). 『雲南財貿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 沈毅(2003). 人際交往中的名与實-論‘面子工夫’中的斷裂(인간교류중의 명예와 득-saving face work의 단절에 관한 논의). 『學術論壇』, 第4期 總第159期.
- 吳鐵鈞(2004). ‘面子’的定義及其功能的研究綜述(체면의 정의 및 그 기능에 관한 연구의 종합적 서술). 『心理科學』, 第27卷 第4期.
- 夏志梅, 彭光芒(2006). 網絡空間中的‘沉默的螺旋’理論的局限性(온라인 공간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의 한계성). 『北京理工大學學報』, 第8卷 第3期.
- 謝新洲(2003). ‘沉默的螺旋’假說在互聯網環境下的實証研究(온라인 환경 하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 가설에 대한 실증연구). 『現代傳播』, 總第125期.
- 熊壯(2011). ‘沉默的螺旋’理論的四个前沿(침묵의 나선이론에 대한 4가지(선구적) 논의). 『國際新聞界』, 2011.
- 翟學偉(1999). 个人地位: 一个概念及其分析框架(개인의 지위: 하나의 개념 및 그 분석프레임). 『中國社會科學』, 第4期.
- 翟學偉(2004). 人情, 面子与權力的再生産-情理社會中的社會交換方式(인정, 체면과 권리의 재생산-(인간)도리 사회 중의 사회교환방식). 『社會學研究』, 第5期.
- 趙昌平(2010). 中國人愛面子的進化心理學分析(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진화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心理學探新』, 第30卷 總第119期.
- Baldassare M., & Kantz, C. (1996). Measures of Attitude Strength as Predictors of Willingness to Speak to the Media.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pp.147-158.
- Baron, M. & Kenny,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1173-1182.

- Glynn C. J., & McLeod, J. M. (1984). Public Opinion du Jour: An Examination of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8, pp.731-740.
- Glynn C. J., & Park, E. (1997). Reference groups, Opinion intensity,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9, pp.213-232.
- Gonzalez, H. (1998). Mass media and the Spiral of Silence: The Philippines from Marcos to Aquino. *Journal of communication*, 14, pp.33-48.
- Hayes, A. F. (2007) Exploring the Forms of Self-Censorship: On the Spiral of Silence and the Use of Opinion Expression Avoidance Strategies. *Journal of communication*, 57, pp.785-802.
- Hayes, A. F., Glynn, C. J., & Shanahan J. (2005). Willingness to self-censor: A Construct and Measurement Too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 pp.298-323.
- Hayes, A. F., Shanahan, J., & Glynn, C. J. (2001). Willingness to Express One's Opinion a Realistic Situation as a Function of Perceived Support for That Opi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 pp.45-60.
- Huang, H. (2005). A Cross-Cultural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 pp.324-345.
- Katz, C. J., & Baldassare, M. (1992). Using the 'L-word' in Public: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 Conservative Orange County, California. *Public opinion quarterly*, 56, pp.232-235.
- Kim, S., Han, M., Shanahan, J., & Berdayes, V. (2004). Talking on 'Sunshine in North Korea':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as a Theory of Powerful Mass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 pp.39-62.
- Lasorsa, D. L. (1991). Political Outspokenness: Factors Working Against the Spiral of Silence. *Journalism quarterly*, 68, pp.131-139.
- Lin, W. K., & Pfau, M. (2007). Can Inoculation Work Against the Spiral of Silence? A Study of Public Opinion on the Future of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9, pp.155-172.
- Neuwirth, K. (2000). Testing the Spiral of Silence Model: The Case of Mexico.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 pp.138-159.
- Neuwirth, K., Frederick E., & Mayo, C. (2007). The Spiral of Silence and Fear of Isol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7, pp.450-468.
- Noelle-Neumann, E.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4, pp.43-51.
- \_\_\_\_\_. (1989). Advances in Spiral of Silence Research. *KEIO Communication Review*, 10, pp.3-34.
- \_\_\_\_\_. (1993).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Our social skin(2nd Ed.).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 Moy, P., Domke D., & Stamm, K. (2001). The Spiral of Silence and Public Opinion on Affirmative Acti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 pp.7-25.
- Petric, G., & Pinter, A. (2002). From Social Perception to Public Expression of Opin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 pp.37-53.
- Price V. & Allen S. (1990). Opinion Spirals, Silent and Otherwise: Applying Small-Group Research to Public Opinion Phenomena. *Communication Research*, 17, pp.369-392.
- Scheufele, D. A. & Moy P. (2000). Twenty-Five Years of the Spiral of Silence: A Conceptual Review and Empirical Out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 pp.3-28.
- Scheufele, D. A., Shanahan, J., & Lee, E. (2001). Manipulating the Dependent Variable in Spiral of Silence Research.

- Communication research*, 28, pp.304-324.
- Scheufele, D. A., & Eveland, W. P. (2001).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 pp.25-44.
- Shamir, J. (1995). Information Cues and Indicators of the Climate of Opinio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the Intifada. *Communication Research*, 22, pp.24-53.
- \_\_\_\_\_. (1997). Speaking Up and Silencing Out in Face of a Changing Climate of Opini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 pp.602-614.
- Shoemaker, P. J., Breen, K., & Stamper, M. (2000). Fear of Social Isolation: Testing an Assumption from the Spiral of Silence. *IRISH Communication Review*, 8, pp.65-78.
- Taylor, D. G. (1982). Pluralistic ignorance and the spiral of silence: A Formal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46, pp.311-335.
- Tokinoya, H. (1989). Testing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East Asia. *KEIO Communication Review*, 10, pp.35-49.
- \_\_\_\_\_. (1996). A Study o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Japan. *KEIO Communication Review*, 18, pp.33-45.
- Willnat, L. (1996). Mass Media and Political Outspokenness in Hong Kong: Linking the Third-Person Effect and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 187-212.
- Willnat L., Lee W., & Detenber, B. H. (2002). Individual-level predictors of public outspokenness: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 pp.391-412.

(투고일자: 2013. 02. 12, 수정일자: 2013. 04. 17, 게재확정일자: 2013. 04. 24)

ABSTRACT

## The Chinese express opinion and concept of ‘face’

Min-Uk Ju\*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Chinese ‘Personal Opinion Expression on Offline’ and ‘Personal Opinion Expression on Online’(Hypothesis 1) and between ‘Save Face’ and ‘Personal Opinion Expression on Offline’, ‘Personal Opinion Expression on Online’(Hypothesis 2). It also analyzes and verifies the impact of ‘Save Face’ among ‘Personal Opinion Expression on Offline’, and ‘Personal Opinion Expression on Online’(Hypothesis 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orrelation between ‘behavior of opinion expression on Offline’ and ‘behavior of opinion expression on Online’. Chinese people who express their views in the public, tend to express their opinions on the Online. The thesis also covers that ‘Silence’ can be caused not only by ‘Personal Fear of Isolation’, but also by ‘Save Face’ upon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by Elisabeth Noelle-Neumann, and prove that ‘Save Face’ relatively affects ‘People talk about their observation’.

It also confirms that ‘Save Face in Open Space’, a factor of ‘Save Face’s, performs a partial channel on ‘Personal Opinion Expression on Online’ and ‘Personal Opinion Expression on Offline’.

Keywords: Chinese, save face, The theory of silent spiral, opinion expression

---

\* Instructor, Dept. of Journalism and PR, Jeju National University